

서문



EAI 국가안보패널이 2004년 연구와 토론을 시작한 이래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2006),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 현실》(2008)에 이어 세 번째 단행본을 내놓는다.

동맹은 인류역사가 본격적으로 국가라는 정치적 모임을 만든 이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고 제도적 장치였다. 오래 된 주제를 새삼스럽게 다시 조명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차대전 이후 등장했던 냉전동맹이 21세기를 맞으면서 반세기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환하고 있다. 복합의 세기를 만나 새로운 삶과 죽음의 짝짓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읽고 삶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오늘날 한국국제정치의 대표적 실천 과제이다.

공동연구는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짝짓기를 복합동맹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주인공과 무대가 냉전질서에 비해서 눈에 두드러지게 복합적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세계무대를 주도할 수 없게 됐다. 무대의 주인공들은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 무대 자체도 딱딱한 군사와 경제만을 중심으로 마련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부드럽고 화려해지고 있다. 복합의 짝짓기는 불가피하다.



새로운 국가 짝짓기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상대적 쇠퇴라는 세기사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21세기 세계무대의 중심에 살아남을 미국의 신동맹 만들기 노력을 복합동맹의 시각에서 조심스럽게 조명했다. 다음으로는 과거와 달리 미국이 독무(獨舞)와 함께 군무(群舞)를 동시에 취야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유럽,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 주인공들의 21세기 새로운 짝짓기를 위한 노력들이 미국의 복합동맹과는 어떻게 어우러져서 새로운 21세기 동맹질서를 형성해 나가는가를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의 바닥에는 냉전동맹에서 복합동맹으로의 대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우리의 짝짓기 화살표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의 숙제가 늘 깔려 있었다.

좋은 의미의 지구 통치의 안목과 심성을 실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21세기 복합동맹의 등장을 세계사적 전개 of 시각에서 조망하고 한반도의 실천적 과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무모하리만큼 힘든 일이다. 그러나 더 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힘에 부치는 작업을 그나마 이 정도라도 마무리짓게 된 데에는 매달 진행된 공부모임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생각과 고민을 나누고 마무리 글쓰기까지 차질 없이 끝내준 동학들의 덕이다. 우



리 나름의 작은 군무였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토론과 글쓰기가 최종적으로 말끔한 한편의 책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늘 그랬듯이 EAI 가족들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김하정 팀장의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십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준 문용일, 김양규 연구원과 꼼꼼한 교정과 편집을 맡아준 신영환 출판팀장이 그 주인공들이다. 모두가 잘 어우러진 한 판의 춤이었다.

2010년 10월

晚靑 河英善